

국제 도시간 우호협력(자매결연)채결 보고서

2001



광진구

국제도시간 우호협력(자매결연)채결 보고서

【 대상국가 및 도시명 】

- 도시명 :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 위치 : 울란바타르시 서남쪽
- 면적 : 45km² (광진구 3배)
- 인구 : 70,000여명
- 양 도시 지역특성 비교

서울 광진구	울란바타르 항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시 동남쪽 ■ 인구 : 39만명 (14만 가구) ■ 면적 : 17.05km² (시의 2.8%) ■ 기후 : 사계절 (춘·하·추·동) ■ 지구인력 : 구청장 5국 1보건소 26과 16동 (1,142명) ■ 지역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도시 : 아차산공원, 한강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풍부한 녹지대 ○ 문화관광자원 : 워커힐, 테크노마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정보도서관 ○ 안정된 주거지역 :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자, 의류, 가구, 음식 등 특화된 상가지역 발달 ○ 교통요지 : 7개의 교량, 지하철 3개 노선 동서울터미날이 연결된 동부서울의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란바타르시 서남쪽 ■ 인구 : 7만명 (14,000가구) ■ 면적 : 45km²(우리구 3배) ■ 기후 : 사계절 - 대륙성 기후 겨울(10월~3월) 여름(7~8월) 연평균 강우량100~200mm ■ 지구인력 : 구청장, 주요 국장급 7명, 기타 국장 20여명, 13개 동 (주민대표 구 운영 참여) ■ 지역특성 : 초원과 목초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 주요 산업시설 (울란바타르 공업제품의 46%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 : 2개소 ○ 모피·양모제조 : 2개소 ○ 기타 중소산업체가 산재함.(공장지역)

※ 구청장 (D.작드잡)

- 취 임 : 2000년 10월

- 임 기 : 4년

【 향후 추진계획 】

□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보고

- 일 정 : 제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 일 시 : 2001. 10. 5 (금) 1차 본회의 시
- 안 건 : 국제도시 우호 협력 추진 보고의 건
-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 규정」

□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 사전 승인 요청

- 승인기관 : 행정자치부
- 경 유 : 서울특별시장(국제협력담당관)
- 제출일시 :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 2개월 전

□ 항을구청장 초청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

- 개 요 - 일 시 : 2001. 11 월 중
 -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내 용 - 양 구 간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
 - 서울시내 관광 및 문화 유적지 관람
 - 문화, 경제, 교육, 체육 등 사회 전반적인 교류 검토

【 우호협력(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

- 자원보유량이 세계 10위 권에 드는 풍부한 자원활용과 우리의 기술 제공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 증진
- 재한 몽골인의 1/3(4,000여명)이 광진구 관내 중소기업체 등에 종사하고,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이 위치하며, 몽골초등학교가 자리잡은 광진구가 재한 몽골인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 함.
- 해외 선진국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중앙아시아로의 다변화된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우호협력(자매결연)을 통한 양 구의 문화, 경제, 체육, 교육분야의 활발한 교류 기대

【 우호협력 체결 】

□ 일 시 : 2001. 11 월 중

□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체결방법 : 광진구청장의 초청으로 양 구청장이 우호협력(자매결연) 체결
합의서 서명

【 기타 관련 자료 】 - 별첨

몽골(항올구) 일반현황

□ 몽골의 현황

몽골은 중앙 아시아의 고원지대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면적은 156만6500km². 인구는 244만명으로 정식 명칭은 몽골 인민공화국(Mongolian People Republic)이다. 수도는 울란바토르(서울시와 1994년도 자매결연)이며 몽골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경은 북서쪽으로 러시아 연방과 접하고, 남동쪽으로는 중국과 경계를 이루며 이전부터 외몽골 이라고 부르던 지역이다.

□ 문 화

몽골인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를 믿는다.

그래서 타 종교에 배타적인 편이다. 물가에 비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대다수의 몽골인들은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없는 형편이지만 발레나 연극, 극장 등은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단위로 즐긴다.

몽골인들은 대개 여름에는 반팔과 청바지 및 운동화, 그리고 모자와 썬글라스 등을 착용하며 봄과 가을에는 점퍼차림, 겨울에는 양털로 된 겹옷이나 두껍고 긴 점퍼 등의 파카류에 짐승의 털로 된 사각형의 털모자 및 장갑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부츠 등을 착용한다. 노인들은 대부분 계절에 관계없이 몽골 전통 옷인 델을 입는다. 겨울에는 대개 어두운 느낌을 주는 색깔을 즐겨 입고 계절이 따뜻해지면서 색깔은 점점 밝아진다.

몽골의 신년인 신짚(12월31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 모든 출가한 자식들이나 친척들 -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선보이고 보드카를 마시며 덕담을 늘어놓는다.

□ 몽골의 자연

몽골은 국토 전체가 아주 높은 지대로, 해발고도 약 1,600m의 고원 국가이다. 지형은 대체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국토 중앙부에서 동부에 걸쳐 목축에 알맞는 대초원이 전개되고 서쪽으로 갈수록 높고 험준하지만 이 지역도 천혜(天惠)의 고원성 초원지대를 이루어 목축이 가능하다.

북서에서 남동부에 걸쳐 몽골알타이, 고비알타이의 두 산맥이 이어지고, 중앙부에 한가이·헨타이 산맥이 완만한 높이로 이루어지며, 북부에는 탄을 및 사안산맥이 형성되어 있다.

수계(水系)는 북부지역을 관류하는 쉐렝가강(江), 동부지역을 흐르는 오논강, 수도 울란바토르 주변을 흐르는 툽강, 중앙지대를 북류하는 오르혼강, 서부지역의 자브한강·자브한강·테스강·이데르강등이 주요 하천이다.

하천의 유속은 비교적 빠르고 물은 맑고 차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혹한이 계속되는데, 여름의 더위는 내륙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 한국과 같은 무더위에 비해서 견딜 만하고, 겨울의 추위는 울란바토르 등지에서도 -40℃로 내려가는 일이 많다.

봄은 5·6월의 2개월로 이즈음 몽골 초원의 아름다움은 여행자를 즐겁게 하지만 기압의 변화가 심하고 때때로 돌풍이 일어 추위가 심하다. 9·10월은 몽골에서 가장 기후가 안정된 시기이다.

□ 주 민

몽골을 형성하는 민족은 할하 몽골족이 3/4을 차지하고, 북부지역에 부리아트, 서부에 바야드·도르보드·다하틴·토르구토·오르도드·미앙가드·다르하드, 동부에 다리강가, 우제무틴 등이 분포한다. 이상의 몽골어계족이 인구의 90%를 점유하고, 이 밖에 서부지역에 투르크계의 울란하이·호튼·카자흐족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할하 몽골어인데 소수민족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카자흐족이 사는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카자흐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자는 위그르문자를 바탕으로 한 구문자(몽골문자)를 쓰다가 1941년부터 러시아문자(키릴문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 역 사

몽골의 주요 민족인 할하족은 몽골제국 이래 형성된 몽골족 중 동몽골에 속하며, 15세기 무렵에는 할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1688년 청나라에 복속하고 그 거주지는 4部86旗로 세분되어 외몽골로 호칭하게 되었다.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외몽골의 지도자들은 이를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호기로 잡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그해 12월 우르가에서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선언하였다.(몽골제1차 혁명)

그러나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러시아·중국의 각서교환에 따라 자치만 인정 받았고, 러시아에 10월혁명이 일어나자 그 자치도 중국에 의해서 1920년 철폐되었다. 그러나 10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하급관료·지식인 등은 반중국·민족해방을 목표로 몽골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1921년 혁명군을 축출하고 신정부를 수립, 독립을 쟁취하였다(제2차혁명).

1924년에는 군주제를 공화제로 고쳐 국명을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봉건·신권제 잔재의 일소, 재산 사유권 금지 등을 규정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로부터 몽골은 소련의 절대적 영향하에 들어가, 그들의 장래를 소련과 함께 하게 되었다.

1946년 국민투표결과 몽골국민의 독립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분리 독립을 인정받아 혁명 후 25년 만에 국제적 지위가 확립 되었고, 1961년에는 국제연합에 가입했다. 1960년대의 중·소대립 때는 소련을 지지, 코메콘 가맹과 소련 및 동유럽 공산국가의 원조로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했다.

중국과는 1986년에야 영사조약을 체결,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였고, 1987년에는 국교를 수립하여 자유세계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 사 회

현대의 몽골사회는 물론 옛날과 같은 유목사회는 아니지만, 인구 약 50만 명이 사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주민 42%가 흔히 몽골 파오라고 불리는 게르(원형천막)에서 살고 있고, 국토의 태반을 차지하는 농촌의 초원지대에는 거의 게르를 치고 살고 있다. 음식은 양고기를 먹고 마유(馬乳)나 몽골주를 마신다. 이것이 농촌 몽골족의 생활기조인데, 지금은 이른바 물과 풀을 찾아 유랑하는 것과 유목생활은 없고 집단적인 목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교는 라마교가 국교였으나 공산화 후 쇠퇴하여 많은 사원이 헐려 100여명의 승려가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공산 정권에 의해 제국주의자·전쟁광으로 낙인찍혔던 징기스칸의 복권운동이 일어나 징기스칸 추모사업회도 발족하였다. 교육은 7년 의무교육에 초등학교 450개교, 기술전문학교 20개교, 종합 및 단과대학 8개교가 있다.

언론기관은 당 기관지 우민(진리) 등 35개지(일간 2), 통신사 1개사, 텔레비전방송국 1국, 라디오방송국 3국이 있다.

□ 몽골의 대한 관계

몽골은 북한과는 1948년, 한국과는 1990년 3월에 각각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1년 10월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1991년에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1998년 현재 대(對) 한국 수입은 3,919만 달러이고, 수출은 518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의류, 비누, 식품 등이고, 수출품은 섬유제품이다. 교민 및 체류자는 444명이다.

□ 경 제

예로부터 몽골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간산업은 목축업이다. 1990년 당시 양 1300만 마리, 소 300만 마리, 말 250만 마리와 염소·돼지·닭 등을 합쳐 약 4000만 마리가 있어, 이는 몽골인 1명당 20마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농업은 대규모적인 기계화농업으로 그 주체는 국영 농·목장인데, 밀·보리·콩 등의 곡류와 감자·토마토·오이·수박 등의 채소, 사과·귤 등의 과일이 수확된다.

중공업은 발전소를 제외하면 거의 미숙한 상태이고, 식품공업, 축산가공, 피혁가공, 직물제조 등 콤비나트를 포함하는 각종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몽골의 경제는 대체로 낙후되어, 구리·몰리브덴·금·석탄·우라늄 등이 매우 풍부해서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임에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외무역은 95%를 소련 및 공산권 국가에 의존하여 왔고, 소련으로부터는 GDP의 30%를 매년 원조받아 왔으나, 1990 ~ 1991년 사이에 없어졌다. 공산권의 민주화 개혁을 전후해서 공산국 국가와의 교역이 줄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도입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1998년 현재 GDP는 58억 달러이고, 인플레이션 6%, 실업을 4.5%이다.

□ 항을구 현황

- 개 청 : 1965년 마지킨구로 개정(1992 항을구로 명칭 변경)
- 위 치 : 울란바토르시 서남쪽
- 면 적 : 45km²
- 인 구 : 14,600세대 70,000명
- 행정조직 : 13개 동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34명의 주민대표로
구 운영에 참여
※ 동 조직 : 1개동 약 1,100여 세대 5,500여명
- 주요산업 시설
 - 식품제조 : 2개소
 - 모피, 양모 제조 : 2개소
 - 기타 중소 산업체가 위치한 몽골국의 요람과 같은 곳임.

2001년 9월 6일

서울시 광진구 · 울란바토르시 항울구간 협력에 대한 비망록

이 협약서의 목적은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와 서울시 광진구의 구단위 차원의 협력을 심화 ·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양 구는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첫 번째 : 항울구 당국은 아래와 같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1. 항울구 12-13동과 광진구 구의2동 사이에 형성된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다른 동도 같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 · 발전시킨다.
2. 양측의 경제 및 사회부문에서의 교류를 지원하고, 협력의 새 장을 열며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역사 및 문화분야에서의 상호이해와 동반자관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자체 및 구민 대표단을 상호교환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여행부분의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4. 자유형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기타종목 등의 다양한 스포츠 친선경기와 회합을 개최하고, 지도자와 선수의 교류를 추진한다.
5. 양측의 해당지역의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 종합대학의 학생, 아동 및 청소년 교류를 추진한다.
6. 항울구민을 일정기간동안 광진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며, 그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가능성과 기회를 연구하고, 관계당국과 협력한다.
7. 직원의 자질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교류에 협력한다.
8. 기타

두 번째 : 몽골국 수도 항울구와 한국의 서울시 광진구는 향후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2년 2월 사이에 향후협력 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한다.

광진구를 위하여
광진구청장 정영섭

항울구를 위하여
항울구청장 작드잡

06 September, 2001

ULAANBAATAR

**MEMORANDUM ON COOPERATION
BETWEEN KHAN-UUL DISTRICT OF ULAANBAATAR
AND GWANJIN -GU OF SEOUL CITY**

For the purpose to deepen and develop the cooperation on district and the district levels, the Khan-Uul District of Ulaanbaatar and Gwangjin-Gu of Seoul City have mutually agreed upon the development of further collaboration between them.

First: Khan-Uul district Government is suggesting following proposals:

1. To extend and develop 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established between 12-th and 13-th khoros of Khan-Uul district and the Kuui 2 dong of Gwangjin-Gu at the level of other khoros
2. To support mutuall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of both parties, to display mutual efforts for opening new perspectives and opportunities of cooperation and for their implementation
3. To cooperate in the fields of development of mutual exchange of delegations of the municipalities and the citizens as well as the culture tourism and travel in order to advance and further mutual understanding,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history and culture
4. To organize joint various competitions and meetings on free-style wrestling, judo, taekwondo, table tennis and on other types of sports games to exchange coaches and sportsmen
5. To exchange students, children and youth between the colleges,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ubordinated to the relevant territories of both sides
6. To send citizens of Khan-Uul district for a definite period to work in Gwangjin-Gu as a workforce and to study the possi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ir living conditions and to cooperate with related authorities thereon
7. To cooperate and exchange both district personnel and to improve their qualifications and skills
8. Others

Second: Khan-Uul district Government of Capital city of Mongolia and Gwangjin-Gu of Seoul city of Korea have agreed to sign an agreement of further cooperation between 15 December, 2000 and February, 2002.

On Behalf of Gwangjin-Gu:

On Behalf of Khan-Uul district:

Chung Yeung Sup
Mayor Gwangjin-Gu

D. Zagdjav
Governor Khan-Uul district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ИЙН ХАН-УУЛ ДҮҮРЭГ, БНСУ-н СЭҮЛ
ХОТЫН КУАНЖИН ДҮҮРГИЙН ХООРОНД НАЙРАМДА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 БАЙГУУЛАХ ТУХАЙ ХЭЛЭЛЦЭЭР**

2001 оны 09 сарын 05 өдөр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ийн Хан- Уул дүүргийн засаг дарга БНСУ-н Сэүл хотын Куанжин дүүргийн захирагч нар дүүрэг хоорондын төр захиргаа нийгэм эдийн засгийн бүх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н ашиг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найрамда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 байгуулах талаар хэлэлцээр хийв.

Нэг. Нийслэлийн Хан- Уул дүүргийн талаас дараах саналуудыг тусгуулахаар оруулав:

1. Хан-Уул дүүрэг Куанжин дүүргүүдийн хороодын хооронд тогтсон харилцааг цаашид бусад хороодын хэмжээнд өргөжүүлэн хөгжүүлэх
2. Хоёр талын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мийн салбарыг харилцан дэмжиж,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шинэ боломжуудыг нээн олж, хэрэгжүүлэхийн төлөө харилцан хичээх
3. Түүх, соёлын салбарт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цол, нөхөрлө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г хөгжүүлэхийн тулд засаг захиргааны удирдлага боло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н солилцоо, "Танилцах аялал"-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4. Чөлөөт бөх, жүдо, тэквандо, одон бөмбөг болон спортын бусад төрлөөр харилцан уулзалт тэмцээн зохиож, дасгалжуулагч тамирчдыг солилцох
5. Хоёр талын нутаг дэвсгэрт харъяалагдах их дээд сургууль, коллежийн хооронд оюутан, хүүхэд залуучуудыг харилцан солилцох
6. Хан-Уул дүүргийн ажиллах хүчийг тодорхой хугацаатай Куанжин дүүрэгт ажиллуулах боломжийг судлан, холбогдох байгууллагуудтай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7. Төрийн албан хаагчдыг мэргэшүүлэх, дадлагажуулах талаар хамтран ажиллах
8. Бусад

Хоёр. Монгол Улсын Нийслэлийн Хан- Уул дүүрэг, БНСУ-ын Сэүл хотын Куанжин дүүрэг хоорондын найрамдал хамтын ажиллагааны гэрээг 2001 оны 12 сарын 15ны дотор буюу 2002 оны 2 р сард багтаан БНСУ-н Сэүл хотын Куанжин дүүрэгт хийж засаг дарга нар гарын үсэг зурахаар харилцан тохиролцов.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сан

Куанжин дүүргийн захирагч :

/ Чон Ен Соб /

Хан-Уул дүүргийн Засаг дарга :

/Д. Загджав/